

# 20년간 쌓은 '장인의 노하우' 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명장' 4명 선정

### 제조기술·설비·레이아웃 분야서 숙련도·노하우 겸비한 직원 선정

삼성명장이 새로 4명 추가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2일 '삼성명장'을 각각 3명, 1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명장은 기술 전문성과 노하우가 특히 요구되는 제조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장인 수준의 숙련도와 노하우를 겸비한 직원을 최고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총 8명이 삼성명장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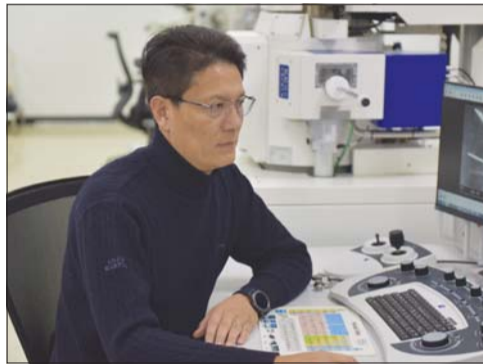
올해에는 제조기술과 설비, 반도체 패턴 회로설계(레이아웃) 분야에서 1명씩 선정했다. 레이아웃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삼성명장을 선발했다. 삼성전기도 제조기술 분야에서 1명을 삼성명장으로 임명했다.

문영준 명장은 제조기술 분야로, 1995년 입사한 고밀도 실장기술 전문가다. 2017년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 확보 연구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글로벌 기술센터에서도 지문인식 흡기 모듈 조립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멘토-멘티' 제도로 후임 양성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배종용 명장은 설비 부문에서 24년간 근무한 반도체 메탈 공정 박막증착(ALD) 설비 전문가다. 작은 반도체에 필수적인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 부품 디자인과 기술 공정 개선으로 설비 경쟁력 강화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조기술 부문 문영준 명장, 설비 부문 배종용 명장, 제조기술 부문 정현주 명장, 레이아웃 부문 이승권 명장.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조기술 부문 정현주 명장, 레이아웃 부문 이승권 명장.

에도 기여했다.

이승권 명장은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으로 레이아웃 부문에서 선정됐다. 35년간 근무했으며, 레이아웃 자동화 툴 개발과 방법론 기준 수립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 사내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SSIT) 반도체공학과를 졸업하고 높은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후진 양성 노력도 병행 중이다.

정현주 명장은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 소속으로 첫 회사 명장이 됐다. 1996년 입사해 MLCC 제조기술 분야에서 설비 국산화와 현장 혁신을 이끌었으며, 중국 천진법인과 필리핀법인 신공장 증설 및 안정화 등 공로도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이날 시무식을 통해 삼성명장에 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너도나도 구독경제, 방심은 금물



기자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넷마블은 지난달 30일 국내 렌털 시장 1위 업체 웅진코웨이인 수를 확정하며 '구독경제'에 뛰어 들었다. KT는 차세대 5G 스토리지 구독경제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월 이용료를 내고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시청하는 넷플릭스와 음원플랫폼은 이미 이용자들에게 익숙해진 구조다.

소유에서 공유를 넘어 경험을 중시하는 구독경제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구독경제의 '구독'은 신문이나 잡지, 우유 배달 등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구독경제는 좀 더 스마트하고, 자유로운 개념이다.

구독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소유보다 경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중 80% 이상이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변화의 물결을 따라 ICT를 기반으로 구독경제에 뛰어드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 번 구독하면 서비스가 대부분 자동결제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구독자가 늘어도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일정한 구독자를 확보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서비스 업데이트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순간 가입자를 잃을 수 있다. '영화계의 넷플릭스'로 떠올랐던 미국 무비패스의 실패가 대표적인 예다. 무비패스는 월 1만1500원 정도에 매일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구독서비스를 출시해 단기간에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유치했지만, 비용이 수익보다 늘어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취향도 확실한 만큼 새로운 것이 없으면 싫증도 금세 낸다. 구독자들 '다 잡은 고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직선형 거래 채널이 구독자와의 동적인 원형 관계로 변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다." 구독경제 용어를 처음 사용한 주오라 창립자 티엔 추오의 말에 주목해야 할 때다.

/silkni@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3일 (음 12월 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48년생 경치는 수려하나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6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2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곧 울 것이다. 84년생 힘든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소** 37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49년생 배우자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 61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73년생 내가 도와준 어제의 후배가 경쟁자로 나타난다. 85년생 내가 좋다고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라.

**호랑이** 38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50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조심. 62년생 아랫사람의 조언도 잘 새겨들어야. 74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아. 86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토끼** 39년생 만회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51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63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주어지니 최선을 다하라. 75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87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

**말** 40년생 삶의 중심에 겸손하라. 52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64년생 소금장사 떠나는 데 비 내리는 격이니 잠시 지체. 76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88년생 선봉에 나서면 구설이 따른다.

**뱀** 41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 된다. 53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65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한다. 77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문서로. 89년생 집착보다는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말** 42년생 장미꽃 같은 화사한 날이다. 54년생 결심은 늘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66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78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다. 90년생 가장 큰 협력자는 부모님이다.

**양** 43년생 적선이 자식들의 복으로 쌓인다. 55년생 민고 말기엔 좋은 결과가 온다. 6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79년생 우물거에서 송눈 찾지 말고 순서대로. 91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원숭이** 44년생 사람앞에서 자랑보다는 지출하라. 56년생 거친 파도를 만나지만 튼튼한 배가 있어 걱정 없다. 68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8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92년생 결과는 노력이 가져온다.

**닭** 45년생 도움을 줘도 당연시하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한다. 57년생 떠나기는 어정쩡한 하루. 69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81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93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니 불청객이다.

**개** 46년생 친구의 병문안 갈 일이 있다. 58년생 오늘은 느긋하게 행동하라. 70년생 다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 8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94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지속적으로.

**돼지** 47년생 입안의 혀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 59년생 결과와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71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하다. 83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95년생 최선을 다해도 못하면 내일이 있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9	8	
4								5
			6		1			
		8				5		
	9	4				2	7	
			9	7	2			
			2		7			
	2	7	5	9	6	4	3	
	6						1	

								8
	1	8		6	7	2		
	5		9					
		5		4				6
	6		3			7	4	9
	7				9			
	9			2				
				4	7			1
4				9	5		2	

스도쿠 정답

2	1	8	9	6	7	5	4	3
8	6	5	4	3	2	1	9	7
6	5	9	2	1	8	7	4	3
7	9	8	3	6	1	5	2	4
1	2	7	5	8	4	9	6	3
5	6	7	9	1	8	2	3	4
1	7	4	1	5	9	2	8	6
5	2	1	6	8	4	9	7	3
9	8	6	4	2	7	3	1	5

2	1	8	9	6	7	5	4	3
8	6	5	4	3	2	1	9	7
6	5	9	2	1	8	7	4	3
7	9	8	3	6	1	5	2	4
1	2	7	5	8	4	9	6	3
5	6	7	9	1	8	2	3	4
1	7	4	1	5	9	2	8	6
5	2	1	6	8	4	9	7	3
9	8	6	4	2	7	3	1	5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모계사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계사회로서 여성 중심적 사회질서였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모계사회는 성씨(姓氏)의 출현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부족국가나 씨족국가로 확대해지려면 가계(家系)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마도 씨족사회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결혼제도도 사회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수렵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정착이 되면서 명령체통의 정립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은 그 부족을 대표하는 힘 있는 권한의 정점을 남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계자는 장자 위주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슬슬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모습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남성 위주의 사회로 개편된 것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문제는 여성을 남자의 소유물이나 귀속물로 본다는 데서 인간사의 모순을 느낀다. 인권이 발달한 서양에서도 지금까지도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남자의 보호 아래 종속돼야 할 존재로 본 데서 연유한 전통이라는데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하는 듯하다. 이는 기독교 사상에도 그 시원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그 갈비뼈로 아내인 이브를 만들었으니 결혼한 여성을 당연히 남편의 귀속물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을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수 과정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인격의 독립성을 구가하는 서양 여성들이 결혼해서도 처녀 때 성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소수인 것도 그러하다. 페미니즘을 구가하는 진보 여성들은 씩씩하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0호